



사람

성균관대 유��피화 교수

## 붓다의 경영학을 알아?

“붓다가 법을 펴면서 설한 ‘자리이타(自利利他):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현대 기업의 고객만족을, ‘발심(發心: 간절한 원을 세운다)’은 비전 제시의 필요성을 뜻합니다.”

저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등으로 널리 알려진 유��피화 교수(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가 독일 대학원생들에게 ‘붓다의 경영학’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대학원생들에게 ‘불교와 경영’ 강의하는 유��피화 교수.

유 교수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이 7월 21~23일과 28~30일, 독일 슈타인바이스대 기술경영(MBE)전공 대학원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기 집중 여름학기 수업(슈타인바이스-SKK GSB과정)에서 ‘불교와 경영’ ‘삼성전자 마케팅 성공 사례’ 등을 강연했다.

### 독일 대학원생에 특강 인연과 내부마케팅 강조

올해 2번째인 이번 독일 학생 연수는 유��피화 교수가 21세기 경영 원리를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불교와 경영’ 강좌 등에 학생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열렸다.

푸른 눈의 수강생들은 유 교수가 ‘불교와 경영’ 강좌를 통해 전달한 인류 최초로 고객만족을 주창한 붓다의 정신과 불교사상에 담긴 경영의 핵심원리에 한껏 매료됐다.

강연에서는 <임제록>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된다)’와 <대반열반경>의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마음을 부처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주인의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경영원리라는 설명 등이 이어졌다.

붓다가 강조한 ‘지금 여기’를 강조한 가르침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원칙으로, 질질 특유의 토론 문화는 바람직한 기업의 토론 문화로 모색됐다.

특히 유 교수는 미당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를 소개하며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조직 경영혁신이론인 내부마케팅(Internal Marketing)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피화 교수는 “회사와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어 외부고객이 중요한 만큼 내부고객 역시 중요하다”며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가 없는 회사는 그 만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현대불교로 맺은 ‘아름다운 인연’ 이야기

## “평생 도반으로 살자구요”

제천 문수회의 유쾌한 ‘나눔 실천’ 본지 기사에 감동  
美 김경자 보살 매월 ‘후원’... 부산서 ‘눈물의 상봉’

“아이고, 사진 보다 젊어 보이고 미인이시네...”

“어머, 형님,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네요? 형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고우시다.”

폭우를 퍼부어 대던 하늘이 갠다. 7월 19일, 부산 해운대 한 호텔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신부가 리허설에 열중이고 가족들은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다. 아직 예식이 시작되려만 두어 시간이 남았는데 머리가 하얀 노보살님과 중년의 보살님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선의화(박정희 74) 보살님이 ‘저기 있네’ 하며 달려가 신랑 어머니 앞에 섰다. 이내 서로를 알아보고 와락 껴안는 두 보살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국 시카고에서 둘째딸을 결혼식을 위해 부산으로 날아 온 김경자 보살님(65). 전화로만 만났던 김경자 보살님을 만나기 위해 제천에서 달려 온 12명의 ‘문수회(회장 강봉순 56)’ 회원 보살님들.

이 아름다운 인연은 ‘현대불교’를 통해 맺어졌다. 2003년 2월 5일자 현대불교(407호) 17면에는 즐겁고



6년 동안 전화 안부만 전하다가 7월 19일 부산에서 만난 문수회 회원들과 김경자 보살(왼쪽에서 두 번째).

유쾌하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제천 문수회 보살님들이 소개됐다. 매월 승가원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지역 복지관을 순례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보살행은 미국의 독자들에게도 ‘감동’이었다.

김경자 보살님은 신문을 보고 곧바로 ‘현대불교’로 전화해 문수회 보살님들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매월 100달러씩 후원금을 보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을 선의화 보살님이 설명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보내는 김 보살이 고마워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었지. 그래서 농사

지은 깨나 고추 땅콩 등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오고가고 가끔 전화 통화도 하면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게 된 거야.”

지난 6년 동안 공간을 초월해 ‘보살행’의 파트너로 살아 온 보살님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1978년에 이민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들 3형제도 잘 컸어요. 교민사회에서 ‘교회 나오라’는 전도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민 가서 세탁소를 열고 이웃집 교포에게 바느질 기술을 배우려는데 교회 나오면 가르쳐 준다’지 뭐니까. 그래서 교회 안가고 미국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이 바느

질의 달인이어서 기술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한참동안 이어진 김경자 보살님의 이야기에 웃고 울던 제천의 보살님들이 땀방울을 내놓았다.

표고버섯과 김, 풍기 인견으로 만든 홀드레스 등이었다. 또 <법화경> 법문 CD 한 세트도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다.

“졸 퇴근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아니 이렇게 만난 것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준비하시다니...”

김경자 보살님이 “평생 좋은 도반으로 살자구요. 형님들 더 늙지 마시고...”라며 눈물을 닦아내자 제천의 노보살님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압우린 좋은 도반이고 말고”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이 아름다운 ‘상봉’을 취재하려간 기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결혼식은 진행됐고 제천의 노보살님들은 “우리가 손주며느리 얻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보살님들은 다시 한 번 일사안고 “또 좋은 일로 만나자”며 인사를 나눴다. 김경자 보살님은 총총히 떠나는데 ‘형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동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금생에 다시 못 만날지라도 다음 생엔 분명히 다시 만나 더 좋은 도반이 될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형님들...”

김경자 보살님은 “평생 좋은 도반으로 살자구요. 형님들 더 늙지 마시고...”라며 눈물을 닦아내자 제천의 노보살님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압우린 좋은 도반이고 말고”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이 아름다운 ‘상봉’을 취재하려간 기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결혼식은 진행됐고 제천의 노보살님들은 “우리가 손주며느리 얻는 기분”이라며 즐거워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보살님들은 다시 한 번 일사안고 “또 좋은 일로 만나자”며 인사를 나눴다. 김경자 보살님은 총총히 떠나는데 ‘형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동안 합장하고 서 있었다.

“금생에 다시 못 만날지라도 다음 생엔 분명히 다시 만나 더 좋은 도반이 될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형님들...”

김경자 보살님은 “평생 좋은 도반으로 살자구요. 형님들 더 늙지 마시고...”라며 눈물을 닦아내자 제천의 노보살님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압우린 좋은 도반이고 말고”라며 어깨를 토닥였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사회 ‘정법 잣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정법불교 모색하는 지리산 아단법석

8월 14~18일 실상사 일원에서 개최

초기·대승·선·현대불교가 하나로 관통되는 불교관을 확립하고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을 형성해 현대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단법석은 법사스님의 강의와 각본도 연출도 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움직이는 선원 조실, 전국선원수좌 대표, 움직이는 선원 열중, 움직이는 선원 열중

참가신청·문의  
-실상사 총무소: 063-636-3031 · 3191  
-입금계좌: 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실상사)

주최: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 주관: 실상사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 “정부·여당 참회하라”

실천승가회 촉구

7월 22일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등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가 정부·여당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승가회는 23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서민들의 주장은 이익집단의 소행으로 호도되는 등 여론을 변질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 금주의 Hot.....



효란 스님 14선지식, 성운 스님 06복지, 향적 스님 18책세상

법구경  
악한 행위는 재 속에 숨어 있는 불씨처럼 어리석은 이의 뒤를 끌끌내 따라다닌다.

현대불교 @ 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창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역시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성물 크기(15x9cm) 규격권 23매  
왕도·심량적, 법사·법장역시, 영거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